국내 이주민 사역 소식

정규호/윤혜신 선교사

August 2021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8-9)

8월 초순 어는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절에서 그 다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난다면 …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나는 무엇을 바꾸고, 나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 졌습니다. 시원스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그 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거의 모든 일상이 비정상인 현재의 삶을 그 분의 뜻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일상은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지내지만 사역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어 예배**를 시작하고자 준비했으나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예기치 않았던 고민거리를 가져다주고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어려운 때가 지나고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기약 없는 희망고문으로 느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것 같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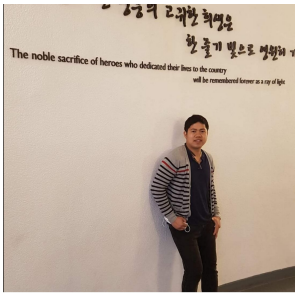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나제즈다** 자매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러시아어 **전도지**를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어 전도지의 영어번역을 참조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1,000장을 인쇄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진영에 거주하는 러시아권 사람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인 중심의 **영어예배**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자발적으로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주일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열심을 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일예배의 찬양에 영감이 넘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어서 주일이 기대되고 기다려 집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멤버들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 큰 부담을 들었습니다만 코로나와 관계없이 영적 부흥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끼난 형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사역의 비전**을 저희들과 공유하고 내년 가을학기부터 고신대학 영어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준비 중에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 형제의 한글 공부와 신학 수업을 위한 기초학습을 저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1. 우리의 지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가운데 놓여있는 이주민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소서
3. 나제즈다 자매 남편의 교통사고 사후처리가 진행중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도우소서
4. 끼난 형제가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잘 받게 하소서
5.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소서
6. 저희 두 아들의 진로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